

‘광주형 일자리’ 전국 사업 확대 기대 ‘지지부진’ 영산강 4지구 농업개발 탄력

광주·전남 추경 1490억 확보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번 국회에서 최종 의결된 정부 추경을 통해 모두 149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광주시는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사업(40억원) 등 지역 현안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고, 전남도는 물 부족 해결을 위한 영산강 4지구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에 송통이 트이게 됐다. 특히 광주시의 경우 고용노동부 국가직접사업으로 광주형일자리 모델 관련 용역비 3억원이 반영돼 노사 상생형 모델인 ‘광주형일자리’가 국가 차원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물론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됐다.

23일 광주시에서 따르면, 지난 22일 국회에서 최종 의결된 정부 추경예산에서 총 30건의 사업비로 606억원이 반영됐다.

사업별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23억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2억원 등이 반영됐으며, 특히 광주시의 미래

광주 30건 606억 반영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노인 일자리·사회활동지원

치매관리센터 구축·국가암관리

먹을거리 산업인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사업도 40억원이 반영돼 본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또 노인·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의료 급여·경상보조 102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28억원, 치매관리센터 구축 35억원, 국가암관리 11억원 등도 반영됐다.

현안사업 예산과는 별도로 보통교부세 추가분 289억원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개선 사업비도 이번 추경에서 확보됐다. 국가직접사업 중에서는 광주형일자리 모델 관련 용역비 3억원이 고용노동부에 반영됐다.

전남 30건 884억 반영

용수개발...수리시설 개·보수

산림재해·여성 경제활동 촉진

교통교부세 2300억 확보

전남도는 이번 정부 추경에서 주요 현안 30건에 884억원 규모의 국고 예산과 기금 90억원 등 총 974억원원을 확보했다. 전년 추경 확보액 398억원보다 갑절이상(576% 원·144%) 늘어난 액수다. 이에 따라 일자리 사업 추진과 가뭄 위기 극복을 위한 돌파구 마련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자리 사업에서는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62억원, 산림재해 일자리 29억 7000만원, 여성 경제활동 촉진 1억5000만원, 장애인 일자리 1억1000만원 등 사업비가 반영됐다. 곡식만 가뭄을 겪은 전남 서북부권 농업

용수 부족 해결을 위한 영산강 4지구 대단위 농업개발 100억원, 가뭄대비 용수개발 50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30억원, 농촌용수개발 20억원 등의 예산도 확보했다.

이 중 영산강 4지구 개발 사업은 당초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미온적 투자로 완공 기간을 10년 가까이 넘기고도 공률이 42%에 그치고 있다. 이번 추경에 100억원이 반영됨에 따라 영산강 4지구 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의료 급여 경상보조 280억원, 치매관리체계 구축 152억원을 확보했으며, 하수관거정비 27억원, 하수처리시설 확충 17억원, 대기 개선 13억원, 대기오염물질관리 4억9000만원 등도 반영됐다.

전남도는 현안사업 예산과는 별도로 보통교부세 추가분 2300억원(도 372억원, 시·군 1928억원)도 추경에서 확보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 인사 뒷말 무성

지사 공백에 기준 오락가락

여성 배려 기준도 제멋대로

전남도가 24일자로 과장급인 서기관(4급) 24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명단 22면>

여성인 윤연화 교통기획팀장이 노인장애인과장으로 승진하고 김희필 총무과장이 직급 승진하는 등 모두 16명이 승진했다. 최성진 환경산업진흥원 사무처장이 관공과장으로, 송원석 해양수산융복합벨트 추진단장이 수산자원과장으로 옮기는 등 8명은 전보됐다.

그러나 이번 인사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도지사 공백상태에서 인사기준이 불명확해 ‘오락가락 인사’가 돼 버렸다는 지적이다.

여성 배려를 내세우며 근평을 무시한 인사를 단행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 내부 불만을 키웠다는 것이다. ‘여성 배려’를 이유로 행정직 승진 요인 6자리 중 근평에서 밀린 여성 사무관 A씨를 근평 순번이 앞선 남성 사무관들을 제치고 과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하지만 앞서 단행한 실·국장 승진 인사에서는 통상적으로 여성이 맡아 오던 보건복지국장에 여성 서기관 2명이 후보자로 물망에 올랐지만, 이를 무시하고 영공서열을 따르다며 남성 서기관을 승진시켰다. ‘여성 배려’라는 잣대가 ‘제멋대로’라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부단체장 인사에서는 규정을 거기면서 4급 서기관을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시켜 곧바로 부단체장으로 내보내 논란을 키웠다. 또한 규정보다 범위를 좁혀 후보자를 선정, 부군수에 도전했던 서기관들 중 일부가 아예 후보에서 배제됐다.

이처럼 전남도 인사에서 문제점이 노출된 데는 선출직 도지사 부재에 따른 조직 지휘력 상실과 외부 인사의 영향력을 배제하지 못한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선출직 도지사의 경우 정치인이나 지역 유력 인사 등의 외부 입김이 작용하지 않지만,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인사권에 대한 한계로 인해 외부 영향력이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중앙직 공무원 증원...삭감된 80억 예비비로 지출

11조300억 추경 국회 통과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가 통과시킨 추경안은 정부안(11조1869억원)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의 거쳐 1536억원 가량 감액한 11조333억원 규모다. <관련기사 4면>

핵심 쟁점이었던 ‘중앙직 공무원 증원’의 경우 추경안에 포함됐던 예산 8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했다. 증원 규모 역시 애초 정부가 제시한 4500명에서 줄여 2575명으로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104명 ▲군부사관 652명 ▲인전

공항 2단계 개항 인력 조기채용 537명 ▲근로감독관 200명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력 82명 등이다.

국회는 공무원 추가채용과 관련한 경비와 관련해 퇴직후 연금부담까지 포함한 중장기 재원소요 계획을 해당 상임위의 예결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올해 본예산 심의 시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기타 공무원의 정원 증감현황을 비롯해 인력운영 효율화 및 재배치 계획을 정부에 국회에 보고할 것 등을 요구했다. 추경 편성요건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예결위는 예산 심사를 통해 정부안에서 1조2816억원을 감액하는 한편 1조

280억원을 증액했다. 감액한 사업은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원을 비롯해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6000억원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 2000억원 ▲정보통신기술(ICT)융합스마트공공보급 300억원 ▲취업성공패키지 244억원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90억원 등이다.

반면 ▲가뭄대책 1027억원 ▲평창올림픽 지원 532억원 ▲노후공공임대 시설 개선 30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204억원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90억원 ▲조선업체 지원(선박건조) 68억2000만원 ▲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지원 30억원 등은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협뉴스

생활안전분야 7~9급 공채

10월 21일 필기시험

22일 ‘일자리 추경예산’이 의결됨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생활안전분야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을 발표했다. 8월14일~17일 원서접수, 10월21일 필기시험, 12월12~14일 면접시험을 본다. 최종합격자는 연내에 발표하기로 했다.

국회는 중앙직 공무원 증원 인원을 애초 정부가 제시한 4500명에서 2575명으로 줄여서 확정했다.

또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104명 ▲군부사관 652명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조기채용 537명 ▲근로감독관 200명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력 82명 등이다.

이 가운데 경찰, 군부사관은 경찰과 군에서 각각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나머지 생활안전분야인 근로감독관과 인천공항 2터미널 인력, 가축질병 방역분야 인력 총 819명에 대한 채용을 인사처가 관리한다. 819명은 관세직, 출입국관리직, 고용노동부 행정직(근로감독관) 등으로 선발되며, 공개 채용과 경력채용이 각각 몇 명인지 그리고 7급과 9급은 각각 몇 명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구체적인 직급별, 직렬별 선발 인원, 응시자격, 합격자발표일 등을 포함한 시험계획은 관련 부처 직제개정안이 8월 초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에 확정된다.

/*연협뉴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 21일 서울시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남북 군사당국회담 성사 불발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회견장에 입장하고 있다. 국방부는 오는 27일까지 북한의 답변을 기다리기로 했다. /*연협뉴스

국방부 “북 군사당국회담 답변 27일까지 기다릴 것”

우리 정부가 군사당국회담 개최 날짜로 제시한 21일까지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은 북한이 이번 주 뒤늦게라도 침묵을 깬다 관심이 있다.

일단 북한은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열자는 우리 정부 제의에 23일까지 무응답(27일)까지 대화 제의가 유효하다며 문을 열어둔 상태다. 만일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에 긍정적 반응을 내놓으면 27일 이전이라도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남북 당국간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회담 제의에 대한 공식반응이라고는 할 수 없다.

우리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군사분계선상 상호 적대행위 중지(27일)까지 대화 제의가 유효하다며 문을 열어둔 상태다. 만일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에 긍정적 반응을 내놓으면 27일 이전이라도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남북 당국간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연협뉴스

추석 전 추경 7조 풀린다

국회가 22일 본회의를 소집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처리하고 국무회의가 곧바로 추경배정계획을 의결하면서 11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추경 공고안과 배정계획을 의결했다. 정부가 추경 집행 작업에 바로 착수하면서 이르면 이번 주부터 추경 재원이 풀릴 것

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달 5일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짜고 7일 국회에 제출했지만 야간 이견에 한 달 반 만인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애초 정부는 추경안을 지난달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해 이르면 이달부터 집행에 들어갈 생각이었다. 그러나 예상보다 한 달가량 늦어진 만큼 서둘러 집행에 나서 일자리와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맡긴다는 계획이다.

임시국무회의에서 추경 배정계획이 의결됨에 따라 각 부처는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재원을 배분받아 바로 추경 집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르면 이번 주부터 바로 추경이 집행되는 셈이다. 초과 세수로 재원을 마련했기 때문에 재원 조달에도 시간이 따로 걸리지 않는다.

이와 관련, 정부는 민간기업 채용이 집중되는 올해 추석 전까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의 70%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협뉴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直通전화 062)513-4306

태광공인중개사

상 가 건 물

1. 송촌동 5층 상가건물 대200㎡ 매11.8억원(보9,500 월500 포함)
2. 월곡동 4층 상가건물 대471㎡ 매14.8억원(보1,5억 월780 포함)
3. 용봉동 4층 상가건물 대468㎡ 매11.8억원(보1,2억 월650 포함)
4. 신가동 3층 상가건물 대273㎡ 매9.3억원(보8,000 월450 포함)
5. 용봉동 3층 대로변상가 대1,100㎡ 매28억(보40만/평, 용22억 포함)
6. 노대동 3층 상가건물 대831㎡ 매26억원(보1,5억 월22 포함)
7. 일곡동 6층 상가건물 대330㎡ 매22억원(보2,4억 월900 포함)
8. 서석동 4층 상가건물 대120㎡ 매4.8억원(보5,000 월180 포함)

상 가 주 택

1. 산정동 3층 상가주택 대180㎡ 매8억원(보6,000 월370 포함)
2.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360㎡ 매6.8억원(용27억 보9,000 포함)
3.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10㎡ 매10.3억원(보3,7억 월280 포함)
4.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250㎡ 매5.9억원(보6,000 월240 포함)

공 장 / 토 지 / 기 타

1. 도천동 하남산단9번로 광산C 입구 공장2동 대1,218㎡ 매12억원
2. 진도군 군내면 나리 바다조망 일야48,600㎡ 매6.6억원
3. 신가동 생산녹지 담745㎡ 매3.65억원
4. 하남동 일반상업지역 대로변 대770㎡ 매23억원
5.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 전1,207㎡ 매2.9억원
6. 산월동 자연녹지 택지조성원로 대290㎡ 매3.3억원
7. 장성군 남면 녹진리 1층일반주거 전2,115㎡ 매2.8억원
8. 매곡동 내광로제비암 1층 상가 주출입구코너 71㎡ 매5.2억

부동산 매물 상담 환영
010-2572-4663 **홍창경**
북구 문화예술회관 근처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19층 95㎡(28평)
- 보400/월47(임대중)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6000만원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8층 49㎡(14평)
- 보200/월25(임대중)
- 수익률 12%이상
- 매매 3000만원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13층 49㎡(14평)
- 보200/월25(임대중)
- 수익률 12%이상
- 매매 3100만원

수완지구 아파트 매매

- 광산구 장덕동 양우내안에 5층(33평)
- 초·중·고 바로 인접
- 전망 좋음 놀이터 솔무공원 전망
- 로얄동 4베이 정남향 일조권 최상
- 매매 2억 7000만원

문의 010-9203-6161